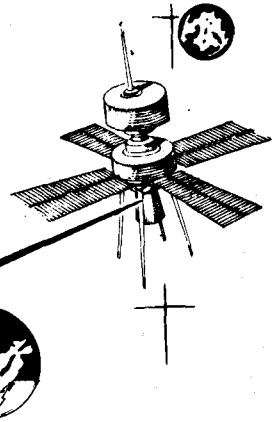


#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자조금(自助金) 제도

미국의 가요 가운데 "풀의 힘"이란 말이 있다고 한다. 이는 자기를 성장 시키고 꽃피울 수 있는 연약한 풀에 깃들어 있는 내재적인 힘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강제력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은 정부가 아니면 정부의 대행 기관인 축협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축협을 우리의 대표기구로 생각해 오지 않은 것이다. 협회의 역할이라는 것도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정부쪽에 잘 부탁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자조금이란 단어는 생소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 이에 필요한 돈을 만든다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이 있고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풀과 같은 힘없는 농민이지만 풀에도 스스로 자라고 꽃피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료, 농약과 수분이 풀을 크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보조적인 역할이며 더 아름답게 꽃피우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자라고 꽃피우는 힘은 풀 자체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자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아직은 국민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즉 자조금의 성격이나 운영 기금적립방법 관리기구 등에 이견이 있는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더 많은 대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우리가 자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비 자조적인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정을 중요시 해야 한다.

과거 자조금의 성격을 띤 기금이나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실패한 것은 모두 이러한 과정의 잘못 때문이었다.

우리의 몸에 익숙한 방법이고 가장 손쉬운 정부가 입법하고 강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어느 기구가 돈을 낸사람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는 그들의 의사는 일부만 반영된채 운영되어 진다면 지금까지의 실패한 그 많은 기금이나 제도에 또하나의 실패의 경험을 더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풀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남에게 영향을 주는 강제적이거나 설득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존재론적 의미에서 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강제 행위에 불과 하다.

비록 시간과 힘이 들더라도 원칙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 제도를 추진하는 지도 그룹들이 양축가를 움직이는 힘과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때 그 힘은 설득력있는 힘이 된다.

이 경우 풀과 같은 양축인의 내재적 힘과 지도 그룹의 힘의 만남에서 양축인을 움직이는 영향력에 대해 양축인은 주체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는 양축의 협력에 근거한 서로의 합작으로 걸작품이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양축가들을 설득하여 굴복시키기 보다는 양축가들이 기쁘게 긍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조금제도의 탄생을 바란다.

##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88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를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작업의 빠

른 진행이고, 경제적으로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과 과열 증권시장 및 서해안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들 수 있다.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들과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중공과도 올림픽 후에는 무역 대표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D그룹의 회장이 이들 공산권 국가에 다녀오는 등 적극적 행동은 D그룹의 주가를 폭등시키는 등 이들 공산권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 기간중 중공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할정도이고 중공이 산동반도를 무역 자유지역으로 개방하므로써 국내 기업들이 흥분하고, 이제는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고 하여 이지역 땅값이 폭등하고 정부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 및 아산항개발 군산장항지역 개발 등을 발표하여 10억 인구를 상대하는 항구로 발전될 이곳 주민들을 가슴 부풀게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성훈교수의 중공 기행문이 한국일보에 한페이지를 원색사진과 함께 전면이 연재되고 있으며 코메디언 심철호씨의 4차례에 걸친 중공방문 기사가 주간지·월간지에 장식되고 있다. 중공 붐이 일어나고 있다.

40년전 중공은 침략자로 우리에게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있다. 이러한 것은 중공민항기가 춘천 비행장에 착륙하면서 공산주의가 싫어 민항기를 춘천으로 끌고온 사람들은 구치소로 보내고 일반 승객은 위키힐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전자가 구치소에서 식사를 할때 이들은 강남의 호화 공원식 갈비집에서 갈비를 즐기므로 시작 되었다.

한편 1945년 2차대전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은 이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여년간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천사의 모습이 아닌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가장큰 이유는 역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때문이다.

미국 나름대로 1,700억불에 이르는 무역적자와 이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등 세계최대의 채무국이 되어 사정이 있겠지만 결과가 자동차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재벌들을 위해서 영세한 농민이 그것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어온 농민이 피해를 입는데 문제가 있다.

쇠고기의 경우는 83년 소값 파동이 전무 후무한 대표

적인 잘못된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은 백만 축산농가를 분노케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비록 관광용이라 할지라도 쇠고기 수입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해왔었다.

담배의 경우에는 암의 원인이 되며 건강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차 금연 지역을 확대하고 광고도 제한하면서 우리에게도 미국 보다도 싼값으로 판매하라고 압력을 넣으며 광고도 허용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금연을 교리로 삼는 한국의 900만 기독교인과 양심적인 국민들로부터 미국이 비도덕적인 국가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YWCA등 기독교 단체가 금연운동을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반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의 여론은 물론 미국내 양심적인 지식인들마저 미국의 담배수출 정책을 비난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포도주 감자 오렌지에 이르기 까지 개방 압력을 넣고 있어 그수를 알 수 없지만 미국을 원망이나 증오하는 국민의 수는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각료나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기관, 학자들과 돈많은 재벌기업들의 언행이다.

사회정의의 진리나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대접을 받아가며 전국민이 고무질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큰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껏 1500만불 밖에 하지 않는 쇠고기 수입개방은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주장이나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쇠고기나 담배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100억불의 무역흑자를 줄이라는 것이지 쇠고기 담배만 수입개방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고 이들에게 묻고 싶다.

미약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수입개방하고 관세도 없는 홍콩에 미국은 왜 환율 절상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수입을 개방하고 관세를 없애도 대미무역 흑자가 커진다면 홍콩과 같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미국은 왜 신발이나 섬유제품의 쿼타를 정해 우리의 수출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개방압력을 가하고 우리만 불공정 거래를 한다고 301조 발동을 하는가도 이들에게 묻고 싶다.

양축농민들도 이제는 국제무역이 상호주의에 의해 철저히 주고 받는 (give and take)호혜주의에 의하고 있



는 것쯤은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농축산업에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83년 소값 파동과 같은 정책으로 농가 부채가 사회문제로까지 발전되었고 이제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민이 설곳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안이 무제한 수매비축과 같은 오히려 양축가를 불안하게 하는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이다.

생산기반 조성에 근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출정책의 대미 일변도에서 다변화를 이루고 가득울이 낮은 것은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

수입 농축산물에 기금을 부과한다고 법까지 만들었지만 사장된 법울이 되어가고 있다.

수출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주장에 농민은 불안하여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간다.

과연 이러한 최근의 여건 변화는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역사의 순리라고 그대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악마의 역할은 올바른 파악한 것이며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가?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깊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비단 편집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양기**